**<귀신안녕> 활동지 – 학부모, 교사 지도안**

**무서움과 이별하는 <안녕그림책> 만들기**

1. **<귀신안녕> 읽고 이해하기**

파란 색 표지 위에 보일 듯 말 듯한 투명글씨의 제목 <귀신안녕>은 ‘귀신’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선미 작가는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오마주 하며, 파란색의 밀도와 명암, 면의 변화를 이용해 귀신에 대해 아이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심화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흠뻑 드러냅니다. 그런 중에서도 글자가 반쯤 가려져 으스스하게 보이는 타이포 디자인은 귀신이라는 소재와 일체화되어 텍스트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한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귀신안녕> 책 속 주인공이 무서워한 것은 무엇이었지요?”
* 책에서 주인공 아이는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했나요?
* 귀신을 무서워하던 주인공은 귀신과 함께 신나게 귀신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주인공에게 밤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변했나요?
* 주인공이 보여주는 마음의 변화를 앞면지와 뒷면지의 색의 변화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 “무서움 혹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 “뭐가 제일 무섭나요?”
* “무섭거나 두려울 땐 어떻게 하나요?”

1. **두려움과 이별하는 <안녕그림책> 만들기**

* 프린트한 활동지는 반 접고, 가운데를 스테이플러 등으로 고정하여 책꼴로 만듭니다.
* 2 과정을 통해 아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를 찾아내도록 합니다.
* 첨부된 <귀신안녕> 그림책의 캐릭터와 텍스트를 이용하거나 그림과 글을 더해 그림책을 만듭니다. (첨부된 캐릭터와 텍스트는 두려움을 느끼고 대면하며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으니 그 순서에 맞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도 됩니다.